

## 시작하기에 앞서

화법과 작문은 어떻게 공부해요?  
화법 풀이 시간은 어떻게 단축하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흔히 “독서처럼 읽고 푸세요.”라는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독서 파트의 지문은 정말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서술 · 문장이 수두룩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사이를 치밀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화법과 작문에서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화법과 작문도 그저 잘 읽으면 잘 풀린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연히 화법 · 작문 · 독서는 같은 줄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평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출제자가 고려하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법과 작문을 풀 때,  
**‘화법과 작문’처럼 풀어야지, ‘독서’처럼 읽고 풀면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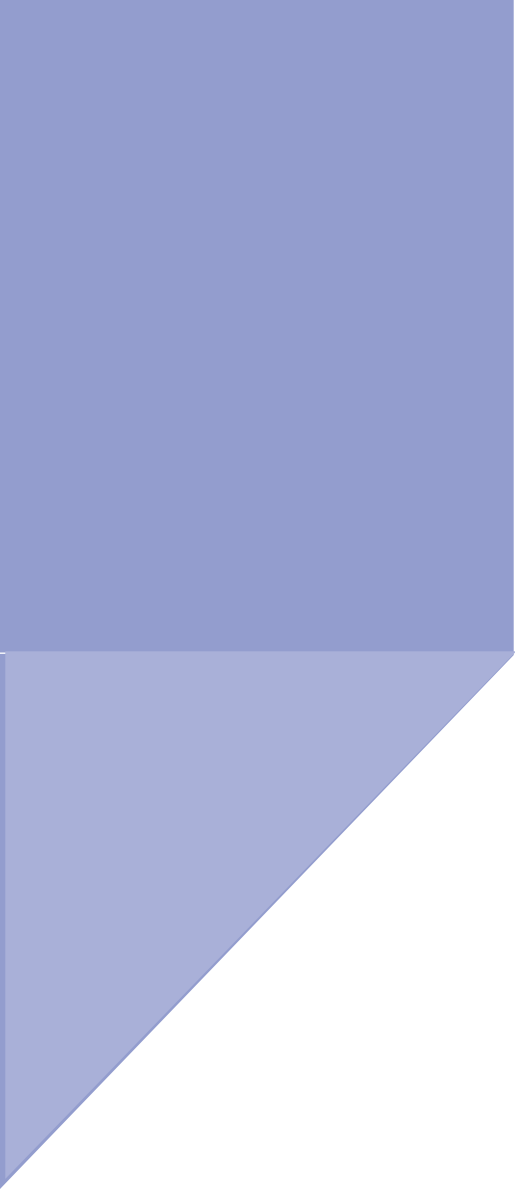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화법과 작문’을 ‘화법과 작문’답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전 연습 파트 전까지 일단 천천히 ‘정독’하면서 납득하고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개념적인 부분을 암기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는 없습니다. 그저 책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바로 시작해봅시다.

P . I . R . A . M

---



# 1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화법과 작문이 무엇을 평가하려 하는지 확인하는 파트입니다.

사실상 이번 파트가 화법과 작문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니,

집중해서 공부해봅시다.

## 1. 화법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

다음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서>에 적힌 화법의 학습방법입니다.

이를 ‘독서’의 경우와 비교해봅시다.

### 3) 화법

화법 영역에서는 화법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여 다양한 담화 상황에 적합한 발화 내용을 생성, 조직, 표현하는 능력과 아울러 의사소통 상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발화 내용과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화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다양한 담화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담화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화법의 본질**’ 과 원리를 이해하기
2. 다양한 담화 상황에 ‘**적합한 화법**’ 내용을 고려하기
3. ‘**의사소통 상황과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화법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기
4. ‘**담화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기

### 1) 독서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독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기
2.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이해하는 능력**
3.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4.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

비교해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독서의 경우와 달리, 화법은 지문에 쓰여있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라는 요구를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필요하겠지만, 내용의 이해보다는 지문의 ‘담화 상황’, ‘화법 내용’, ‘화법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법은 독서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독서라면 선지로 변환될 지점들도 화법에서는 선지로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화법에 쓰여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우려 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화법’에만 집중하세요.**



## 그렇다면 ‘화법’은 무엇인가?

화법은 <말하기에 쓰이는 일반적이며 특수한 모든 방법>을 뜻합니다.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화법 영역은 ‘**말하기 방법**’에 대해 평가하는 영역이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일치’를 물어보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가원은 구체적인 내용 일치보다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적절한 **말하기**를 하였는지 평가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내용적 측면도 출제될 수 있지만, 그 말하기 상황의 **핵심(=주제)**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여 출제하는 것이죠.

항상 담화의 **주제**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제를 바탕으로 **핵심정보**와 **세부정보**를 구분하여 독해해야 하며, **출제 포인트**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정보**는 주제와 관련 있는, 큰 카테고리를 지닌 정보이고, **세부정보**는 주제와 관련은 있지만 너무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화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 번 살펴봅시다. 지문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문제들의 선지만 한 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선지를 읽으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공통 요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비단 화법과 작문 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에서 중요한 기출 분석 작업이니까요.

꼭 선지를 읽고, 스스로 생각해보신 후 다음 설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 01 ‘모의 면접’에서 ‘면접자’의 질문과 ‘피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질문하였다.
- ②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가로 질문하였다.
- ③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질문하였다.
- ④ ‘피면접자’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하였다.
- ⑤ ‘피면접자’는 말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답변하였다.

### 01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 ②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발화이다.
- ③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화이다.
- ⑤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 04 위 협상에 나타난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제 타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②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⑤ 가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의견이 정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 01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 내어 강연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 ② 강연 중간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설명 대상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있다.
- ⑤ 강연 진행 순서를 처음에 안내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문제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평가원은 담화 상황에 따른 올바른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그에 대해 청중 혹은 청자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해 출제합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들은 자주 출제되는 **출제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말하기 방식과 청중의 반응은 화법의 본질이니까 당연히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더하여 평가원은 사회자의 역할, 발표자의 발표 계획, 연설 계획 등과 같이 말하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면  
평가원 세부정보를 답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평가 목표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는 제가 화법과 작문을 읽을 때  
세부정보를 거르고 핵심정보만 읽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정보**와 **핵심정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봅시다.

제가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지금부터 형광펜은 '초록색'과 '회색'으로 나뉩니다. '초록색'은 글의 주제나 핵심정보, 출제 포인트 등에 체크되어 있고, '회색'은 약하게 읽어도 되는 세부정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화법은 독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상정거도'가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과 그 풍경을 그렸는지, '용비어천가'가 한글을 사용한 최초의 작품인지,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큼 오래됐는지, 별자리를 보여주는지, 밝기를 보여주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세부정보들은 선지로 변환되어 출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답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정보로 학생들을 변별하는 건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요!

**즉, 형광펜 친 정보같이 독서처럼 뻥센 내용 일치는 결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 일치는 독서에서나 나옵니다.**

화법은 유형별로 출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2-1. 유형별 화법 개념>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문의 본질과 출제 포인트에 대해 공부하러 가봅시다!

박사 : 이 그림은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라는 작품입니다. 정선은 퇴계 이황의 도산 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학생 :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황 선생이 계실 것만 같아요.

박사 : (웃음)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작품 속을 유심히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도 보이지요?

학생 : 와! 있네요. 작아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박사 : 그렇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답니다.

학생 :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만 원권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들어 있나요?

박사 :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만 원권을 가리키며) 여기 세종대왕 초상 옆에는 한글을 사용한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 2장이 있어요.

학생 :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뒷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은 별자리인가요?

박사 : 맞아요. 이것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일부예요.

학생 :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사 : 이 천문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큼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예요. 별자리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별의 밝기까지도 표시했지요. 조선 시대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학생 : 와! 지갑 속에 우주가 들어 있었군요.

박사 : 참 신기하죠? 평소에 저는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인터뷰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토론 · 토의 · 협상

화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유형의 특성상 조금은 세부적인 정보가 출제되는 경향도 있구요.  
가장 효율적이고 실전적이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토론과 협상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파트를 나눠서 설명할 만큼 큰 차이가 아니기에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론, 토의, 협상은 모두 **생각의 차이**가 전제됨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필연적인 갈등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제**에 대한 참여자의 **입장**을 파악해야 하고, 누가 누구의 의견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반대하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서>에서도 특히 **반론**에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기 전에 예상되는 반론을 말하고, 미리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이죠.

또한 각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부분을 **부분 동의**라 하겠습니다. 부분 동의는 항상 출제될 수 있는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적절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설문조사, 통계, 각종 문헌 자료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회자의 역할**에도 집중해서 읽어줘야 합니다.

간단히 토론, 토의, 협상의 특성을 알아봤으니 **풀이 순서**와 **출제 포인트**를 알아보시다.

### 풀이 순서

1. 토론, 토의, 협상의 주제를 잡는다.
2. 각자의 입장을 파악한다.
3. 각자의 입장(=주장)에 대한 근거를 파악한다.
4. 서로의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체크한다. 이때, 반대가 더 중요하다.

### 출제 포인트

1. 누가 누구의 의견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2. 부분 동의 (서로 동의하는 공통된 지점)
3. 적절한 자료 사용 (자료의 신뢰성)
4. 비판하기 문제 (자세한 것은 <4&5. 실전 연습>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5. 사회자의 역할 (토의 주제 안내, 발언 순서 안내, 토론 진행, 토의 내용 정리,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조정 등)
6. 토론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
7. 예상 반론에 대한 발화

다음 페이지에서 예시 지문에 연습해봅시다.

토론, 토의, 협상은 기출에 정말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화’ 나 ‘인터뷰’ 와 달리 이번 예시 하나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 만 잡는 정도로 이해합시다.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 혹은 강사보다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업이든, 독학서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졸리지도 않을뿐더러 실력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자기의 사고과정과 강사 혹은 독학서의 사고과정을 비교하며 실력이 상승하는 것이구요.

강의를 하다보면,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 없이 무의미한 필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저보다 먼저 생각하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항상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더라구요. 여러분도 **능동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스스로 먼저 **형광펜**을 쳐보고, **출제 포인트**도 잡아보고, **세부정보**도 잡아보며 제가 어떤 설명을 할지 미리미리 생각도 해봅시다. 그 후에 다음 페이지의 해설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사회자: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심사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스타를 응원하며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요즘 팬덤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 운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가요?

찬성 1: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반대 2: [A]

찬성 1: 저희는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팬덤은 다른 팬덤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팬덤 활동을 하면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찬성 측에서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스타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자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팬덤 참여자는 스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화 실천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스타와 관련된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연하의 스타에게 열광하는 이모 팬덤, 삼촌 팬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저희가 팬덤 활동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1: 중독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반대 1: 중독은 어떤 대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찬성 1: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반대 1: 중독된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첫 번째 형광펜을 보니 토론의 **논제(=주제)**를 알 수 있군요.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협상, 토의, 토론에서는 **필연적으로** 참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 **근거**에도 집중해야 하죠. 일일이 외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납득하며 읽어야 합니다.

또한 토론에서는 자신이 사용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 정의해주는 행위 자체가 선지로 출제됩니다. 정의된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걸 해줬는지'가 출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팬덤'이라는 개념을 '정의'해 준 행동이 출제되었네요.

**자료의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록색 형광펜을 보며 정리해볼까요?

#### 찬성 측 주장 및 근거

- 인간관계 확장
- 삶의 만족감
- 문화 실천의 주제

#### 반대 측 주장 및 근거

- 인간관계 확장X (찬성 측 근거) → 편협한 이기주의
- 삶의 만족감X (찬성 측 근거) → 중독 현상
- 문화 실천의 주제X(찬성 측 근거) → 수동적 소비자
- 어모 팬덤과 삼촌 팬덤의 사회적 물의

반대 측의 마지막 근거에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토론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 이모와 삼촌에 대한 얘기는 **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법과 작문은 **주제**가 중요합니다. 주제 즉, 논제와 벗어나는 발언이 나오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한편, 주장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회색 형광펜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의 '중심 내용'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능력이 된다면' 모두 기억하려 노력하시고, '나는 기억 못할 것 같다' 하시면 저처럼 초록색 형광펜 부분만 강하게 독해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색 형광펜은 안 읽는 게 아니라 '약하게' 읽어주시는 겁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심사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스타를 응원하며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요즘 팬덤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 운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가요?

찬성 1: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반대 2: [A]

찬성 1: 저희는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팬덤은 다른 팬덤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팬덤 활동을 하면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찬성 측에서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스타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자 일종의 중독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팬덤 참여자는 스타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문화 실천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스타와 관련된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최근 연하의 스타에게 열광하는 이모 팬덤, 삼촌 팬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저희가 팬덤 활동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1: 중독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반대 1: 중독은 어떤 대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찬성 1: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반대 1: 중독된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p.106)

안녕하세요? 영양 성분 표시 제도와 관련해 강연을 하게 된 ○○보건소의 △△입니다. 2018년부터는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알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부 가공 식품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분들이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표시 도안을 같이 보시죠.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인 점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표시하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 번에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는데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개정 전보다 올라가 게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 하고 있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열량의 표시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열량에 대한 소비자 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던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 중에서 당류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비율을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0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강연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02 다음은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이다. 시각 자료를 보며 강연을 들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정 전 표시 도안>		> 개정 후 표시 도안<	
<b>영양 성분</b> 1회 제공량 ○○(○○g) 총 ○○○회 제공량(○○g)		<b>영양 정보</b> 총 내용량 ○○g ○○○○kcal	
1회 제공량당 함량	% 영양 성분 기준치	① 총 내용량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열량	○○○kcal	② 나트륨	○○mg ○○%
탄수화물	○○g ○○%	③ 탄수화물	○○g ○○%
당류	○○g ○○%	④ 당류	○○g ○○%
단백질	○○g ○○%	지방	○○g ○○%
지방	○○g ○○%	트랜스지방	○○g ○○%
포화지방	○○g ○○%	포화지방	○○g ○○%
트랜스지방	○○g ○○%	콜레스테롤	○○mg ○○%
콜레스테롤	○○mg ○○%	단백질	○○g ○○%
나트륨	○○mg ○○%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영양 성분 기준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① ㉠은 영양 정보를 확인할 때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함량 표시 기준이구나.
- ② ㉡은 에너지 공급원순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표시한 것이구나.
- ③ ㉢은 소비자의 관심도와 국민 건강상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졌구나.
- ④ ㉣은 소비자 분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위치를 구분해 표시한 것이구나.
- ⑤ ㉤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면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게 되었구나.

## 03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양 성분 표시 제도가 일부 가공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나요?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가요?
- ④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⑤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고량은 얼마인가요?



[4~7] (가)는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p.108)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

2017년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또래 상담 요원을 모집합니다. 또래 상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대상: △△구 지역 내 고등학생
- 신청 방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제출
- 선발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가)

친구 관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는 또래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저도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래 상담 요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참여한 공부방 봉사 활동은 상담에서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공부방 봉사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활동인데,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해 갔지만 제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해 보니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겨를도 없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만 했던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중 어려운 것은 없었는지, 혹시 공부 외에 힘든 점은 없는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후 수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방 봉사 활동은 물론, 상담을 할 때에도 상호 간의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좋은 또래 상담 요원이 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상담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상담 선생님께서 추천을 받은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이론 중 저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상담자에게는 피상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또래 상담 요원 역시 또래 친구들의 고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래 상담을 받으면서 얻은 가장 큰 힘은 또래 친구가 전해 주는 정서적 위로였습니다. 만약 제가 또래 상담 요원으로 선발된다면 친구의 이야기와 고민을 경청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면접 대상자 :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입니다.

면접자 : 안녕하세요? 긴장한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면접 대상자 : 네, 잘 알겠습니다.

면접자 : 다양한 상담의 유형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또래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면접 대상자 : 네, 요즘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제가 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1순위가 친구였습니다. 또래 상담은 생각의 눈높이가 맞는 또래 친구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 평소 또래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면접 대상자 : 네,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보면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의 상담자의 태도가 세 가지로 제시 되어 있는데요, 공감적 이해의 태도 외에도 상담자는 피상담자를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하며 피상담자에 대한 긍정적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면접자 : 잘 알고 있네요. 혹시 상담에서 말하는 '래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면접 대상자 : 래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접자 : 네, 맞습니다.

면접 대상자 : 래포란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상담은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활동이므로 래포는 상담이 이뤄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 신뢰와 친근감을 뜻하는 래포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 이군요. 이번에는 상담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래 친구가 최근 성적이 많이 떨어져 부모님께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면접 대상자 : 먼저 또래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뢰와 친근감을 형성한 뒤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며 상담을 하겠습니다.

**04 (가)에 반영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다. 자기소개서에는 ㉠ 지원 동기, ㉡ 성장 배경 및 가정환경, ㉢ 성격의 장단점, ㉣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 ㉤ 지원자의 다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05 (가)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업 계획을 언급하여 지원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지원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지원자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지원자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활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

**06 <보기 2>는 면접 대상자의 사고 과정 중 일부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A]~[C]에 대한 질문 분석과 답변 전략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

면접은 질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지식, 성품,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적 대화이다.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면접 대상자에게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답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보기 2]**

[질문 분석]	[답변 전략]
㉠ 자기소개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여 답변해야겠군.
㉢ 지원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답할 것을 요구하는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답변해야겠군.
㉤ 지원 분야와 관련한 상황을 제시하며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지 않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답변해야겠군.
⋮	⋮

**질문 분석      답변 전략**

- |       |       |       |       |       |
|-------|-------|-------|-------|-------|
| ① [A] | ② [A] | ③ [B] | ④ [B] | ⑤ [C] |
| ⑥ [A] | ⑦ [A] | ⑧ [B] | ⑨ [B] | ⑩ [C] |
| ⑪ [A] | ⑫ [A] | ⑬ [B] | ⑭ [B] | ⑮ [C] |
| ⑯ [A] | ⑰ [A] | ⑱ [B] | ⑲ [B] | ⑳ [C] |
| ㉑ [A] | ㉒ [A] | ㉓ [B] | ㉔ [B] | ㉕ [C] |

**07 (나)에 나타난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②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와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③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 ‘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④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며 재진술하고 있다.
- ⑤ ‘면접자’는 면접의 도입부에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 주는 말을 하고 있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p.112)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 ○○시청 시내버스 운행 정책 담당자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A 단지’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 단지 학생들을 대표하여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의 고등학교들은 시내에 위치한 반면 2016년 2월에 생긴 A 단지는 시 외곽에 있어 이곳에 사는 많은 학생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30분 이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번 버스의 경우 A 단지를 지나 시청, 버스 터미널, 중앙 시장 등 시내 주요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에 이릅니다. 시내 고등학교들로 향하는 다른 노선들도 상황은 이와 유사합니다. 통학 시간이 길어서 아침부터 피곤해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게 되는 등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기피하게 되고 부모님의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은 A 단지에서 고등학교들로 향하는 시내버스 노선들이 시내의 너무 많은 정류장을 경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란 등교 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A 단지에서 출발해서 거점 정류장만을 경유하여 시내 고등학교까지 최단 경로로 운행하는 노선을 말합니다. 급행 노선의 신설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인접한 고등학교들을 묶어 하나의 노선으로 정하고, A 단지 이외의 학생들이 많이 타는 곳을 거점 정류장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

## 0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②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 방안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있다.
- ③ 건의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09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건의문의 끝 부분에는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건의주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 ① 수요 조사에 따른 버스 운영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며, ○○시도 시내버스 운영 지원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② A단지 학생들이 겪는 등굣길 버스 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단지 학생들의 아침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A단지 학생들의 등굣길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으며, 여유롭게 등교할 수 있게 되어 A단지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④ 학생들의 자가용 통학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어 학부모들이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긴 통학 시간으로 인한 A단지 학생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을 해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0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가) 인터뷰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너무 많은 곳을 돌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야 되고, 종종 아침밥도 못 먹고 갈 때가 있어요.”  
- □□고등학교 학생 -

### (나) 'A단지' 고등학생들의 등교 수단 이용률

등교 수단 조사 시점	자가용	시내버스	기타
2016년 6월	25.2%	66.7%	8.1%
2016년 12월	44.4%	47.8%	7.8%
2017년 6월	53.2%	38.5%	8.3%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

### (다) 신문 기사

△△시가 3월부터 고등학교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본격적으로 운행하였다. 등교 급행 노선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통학생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학교까지 일부 정류장만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기존 40분대 통학 시간을 20분대로 줄였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급행 노선 운행 전보다 증가하였다.

- ① (가)의 학생 경험을 제시하여 등굣길 시내버스 노선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어야겠군.
- ② (나)의 시내버스 이용률 변화 추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내버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겠군.
- ③ (가)와 (나)를 활용하여 자가용 이용률 증가가 시내버스 이용 불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겠군.
- ④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자가용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군.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학생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군.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영양 성분 표시 제도와 관련해 강연을 하게 된 ○○보건소의 △△△입니다. 2018년부터는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알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모른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이 강연의 **주제**군요. 따라서 우리는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에 집중해서 읽으면 됩니다. 영양 성분 표시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표시 방법의 '개정'이 중요한 것이죠. 정확하게 **주제**에 맞추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청중의 배경지식을 점검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은 체크해야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부 가공 식품에 영양 정보를 표시하는 영양 성분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표시 도안을 같이 보시죠. (시각 자료를 보여 주며)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인 점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표시하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 번에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업체마다 1회로 보는 양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표시 도안을 같이 보자고 하네요. **시각 자료를 사용합니다.**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표시하는 기준은 **달라졌습니다.**>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강연의 주제니까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했던 영양 성분 함량을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바꾸었네요.>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뽑자면 저 내용을 담은 문장일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기준을 개정했구나!>라는 생각까지 하면 좋습니다. **주제**가 되는, 즉 '개정'의 '배경'이니까요.

한편,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둔다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뭔가 출제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좋지만, 일단 핵심만 잡고 갑시다.

시각 자료의 내용은 세부정보가 어느 정도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세부정보만을 묻기 위해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의 적절한 활용**을 물어보는 것이죠.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2번과 같은 문제 유형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풀면 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세부정보가 출제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하던 대로** 글의 **주제**에 맞는 '핵심'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다.
2. 선지에서 물어볼 경우 선지의 내용이 지문과 부합하는지 **확인**만 하러 지문으로 돌아간다.

어차피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평가원이 **주제**와 관련 없는 세부정보를 출제하여 학생들을 변별할 리가 없습니다. 교육목표에 어긋나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2번 문제를 풀면서 얘기합시다.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는데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상 중요해진 성분들은 순서를 위로 올려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로** 나트륨의 표시 위치가 개정 전보다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양 성분의 표시 순서도 개정되었습니다. **주제**이므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집중하며 읽어봅시다. <개정 전에는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는데,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거나 국민 건강에 중요해진 성분들을 위로 올려서 표시하네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밑에 나오는 예시는 어느 정도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예시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챙겨야 하는가? '나트륨 표시 위치가 달라졌네. 국민 건강상 중요해졌구나.' 정도의 생각만 하면 됩니다.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배 수준이라는 정보는 당연히 세부정보입니다. 이는 나트륨과 관련된 정보지, 표시 순서 변화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정도의 선지만 예측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열량의 표시 방식도 바뀌었는데요, 열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던 열량, 당**



류, 트랜스지방 중에서 당류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비율을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열량의 표시 방식도 개정된 부분이네요.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열량을 표시한답니다.> 중요한 정보죠? 또한 <당류는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합니다.> 이것 또한 개정된 부분이므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아니 당류는 세부정보아니야? 너가 외우지 말라며..’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당류’라는 이름 때문에 세부정보라고 생각했다면, 공부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주제**와 관련된 것을 핵심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당류’든, ‘열량’이든, ‘나트륨’이든 말이죠.

**항상 주제를 고려하며 읽으세요.**

## 0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 중간 중간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강연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강연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강연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① 요약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미리 체크했어야겠죠?

② 아까 예측했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③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사례 없죠?

④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  
다.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선지를 손쉽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끌릴 수 있는 선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빗대어  
설명했는지 확인하기 전에 세모 치고 넘어간 후 ②번과 같이 완벽  
한 선지가 있다면 그 선지를 선택합니다. ①~⑤번 선지를 모두 보  
았을 때 답이 없을 경우에만 지문으로 돌아가서 ‘비유’를 찾습니다.

⑤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질문을 했죠?

## 02 다음은 강연자가 사용한 시각 자료이다. 시각 자료를 보며 강연을 들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개정 전 표시 도안>

## <개정 후 표시 도안>

### 영양 성분

1회 제공량 〇〇(〇〇g)

총 〇〇회 제공량(〇〇g)

1회 제공량당 함량    % 영양 성분  
기준치

열량    〇〇〇kcal

탄수화물    〇〇g    〇〇%

당류    〇〇g    〇〇%

단백질    〇〇g    〇〇%

지방    〇〇g    〇〇%

포화지방    〇〇g    〇〇%

트랜스지방    〇〇g

콜레스테롤    〇〇mg    〇〇%

나트륨    〇〇mg    〇〇%

\* % 영양 성분 기준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영양 정보

총 내용량 〇〇g

〇〇〇〇kcal

총 내용량당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나트륨 〇〇mg

〇〇%

탄수화물 〇〇g

〇〇%

당류 〇〇g

〇〇%

지방 〇〇g

〇〇%

트랜스지방 〇〇g

포화지방 〇〇g

〇〇%

콜레스테롤 〇〇mg

〇〇%

단백질 〇〇g

〇〇%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㉑은 영양 정보를 확인할 때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함량 표시 기준이구나.
- ② ㉒은 에너지 공급원순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표시한 것이구나.
- ③ ㉓은 소비자의 관심도와 국민 건강상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이전과 표시 위치가 달라졌구나.
- ④ ㉔은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다른 성분들과 위치를 구분해 표시한 것이구나.
- ⑤ ㉕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면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표시하게 되었구나.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문제입니다. ‘세부정보도 읽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하나씩 들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①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후에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정보는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② 개정 전 표시 순서에 관한 선지입니다. 이 선지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공급원순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니?>가 아니라, 개정 전에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정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읽었으니, 개정 전에 어떻게 표시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서로 표시되어 있으니 맞는 선지입니다. 평가원은 에너지 공급원순으로 ‘표시’함을 물어보지, 에너지 공급원순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서인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세부 정보니까요.

③ 나트륨이 국민 건강상 중요해서 위치가 올라갔었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표시 순서’가 핵심인 부분으로 올라가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④ ‘열량은 다른 성분들과 분리해 표시한다.’ 핵심정보였습니다.

⑤ 당류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게 바뀐 것은 맞지만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을 상대적으로 못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당류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이었는지 체크하러 올라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추가’ 여부만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개정 전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게 풀면 결국 시간 부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당류가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으로 ‘추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류의 표시 방법이 바뀐 것은 ‘1일 영양 성분 기준치’밖에 없으므로,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 03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학생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양 성분 표시 제도가 일부 가공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나요?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영양 성분 표시 방법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의무적으로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성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타민이나 칼슘 등은 왜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가요?
- ④ 대용량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기준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⑤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2배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권고량은 얼마인가요?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의 내용은 지문에 나오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지문에 이미 제시된 정보를 물어본다면, 답이겠네요.

① ‘일부 가공 식품에 적용한다고 하셨는데,’를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가 지문 내용을 한 번 더 재진술 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맞는 내용을 한 번 더 말해준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지는 안 나왔으니 질문할 만도 하네요.

② 강연의 주제였습니다. 당연히 언급된 정보이니, 답이겠네요.

③ 비타민과 칼슘은 의무 표시 대상에 없었나 봅니다.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타민과 칼슘이 실제로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에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원이 굳이

세부정보에 비타민과 칼슘을 넣어서, ‘사실 비타민과 칼슘 언급되어 있어서 틀림~’ 이러진 않을 것입니다. 교육목표에 어긋나요.

④ 대용량 제품의 경우는 ‘예외’였죠?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머릿속에 그 기준을 설명한 적은 없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언급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충분히 질문할 만 합니다.

⑤ 2배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문에 2배라고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고량이 나오지 않았음을 알고, 권고량을 질문할 수도 있다는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정 걱정된다면 권고량이 나왔었는지 확인하러 지문으로 돌아가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4~7] (가)는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

2017년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또래 상담 요원을 모집합니다. 또래 상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대상: △△구 지역 내 고등학생
- 신청 방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제출
- 선발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또래 상담 요원에 대한 자기소개서네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에 집중하여 읽어 봅시다.

(가)

친구 관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는 또래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저도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래 상담 요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래 상담 요원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나오네요. 자신이 또래 상담으로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지원 배경을 드러낸다고 선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작년부터 참여한 공부방 봉사 활동은 상담에서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공부방 봉사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활동인데,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해 갔지만 제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해 보니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겨를도 없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만 했던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중 어려운 것은 없었는지, 혹시 공부 외에 힘든 점은 없는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후 수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방 봉사 활동은 물론, 상담을 할 때에도 상호 간의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좋은 또래 상담 요원이 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공부방 봉사 활동을 언급합니다. 봉사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또래 상담 요원'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주제와 엮어서 글을 읽어야죠. '초등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활동~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는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수필 형식의 글도 그렇고, 작성자가 추가 되는 글은 작성자가 '느낀점'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그 '느낀점'과 주제(또래 상담 요원)를 엮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즉, 이 지문에서는 <공부방 봉사 활동을 통해 상담 할 때 상호간의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래 상담 요원'이 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상담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상담 선생님께서 추천을 받은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이론 중 저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상담자에게는 피상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또래 상담 요원 역시 또래 친구들의 고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래 상담 요원이 되기 위해 '책'도 읽었네요.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글쓴이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이 무엇인지는 세부정보예요. '공감' 정도의 키워드만 잡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가 읽고 한 생각이 중요하죠. '또래 친구들의 고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제가 또래 상담을 받으면서 얻은 가장 큰 힘은 또래 친구가 전해 주는 정서적 위로였습니다. 만약 제가 또래 상담 요원으로 선발된다면 친구의 이야기와 고민을 경청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래 상담 요원이 되었을 때의 다짐을 언급하며 글을 끝냅니다.

(나)

면접 대상자 :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입니다.

면접자 : 안녕하세요? 긴장한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면접 대상자 : 네, 잘 알겠습니다.

'면접자가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지는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면접자 : 다양한 상담의 유형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또래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면접 대상자 : 네, 요즘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제가 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1순위가 친구였습니다. 또래 상담은 생각의 눈높이가 맞는 또래 친구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A]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네요. 또래 친구와 함께 고민을 나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면접자 : 평소 또래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항상 그랬듯, (가)와 (나)를 연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선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B]

면접 대상자 : 네,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보면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의 상담자의 태도가 세 가지로 제시 되어 있는데요, 공감적 이해의 태도 외에도 상담자는 피상담자를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하며 피상담자에 대한 긍정적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 외의 '진정성', '긍정적 존중'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군요. 모두 세부정보이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 (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면접 때 말한다는 것만 체크해 주세요.

면접자 : 잘 알고 있네요. 혹시 상담에서 말하는 '레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면접 대상자 : 레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접자 : 네, 맞습니다.



면접자의 질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네요.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니, 체크해줘야 합니다.

**면접 대상자 :** 래포란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상담은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활동이므로 래포는 상담이 이뤄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래포의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네요.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죠. 래포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아도, 자기소개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은 체크해야 합니다.

**면접자 :** 신뢰와 친근감을 뜻하는 래포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 **이군요**. 이번에는 **상담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C]** 또래 친구가 최근 성적이 많이 떨어져 부모님께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면접자가 답변을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상황 즉 예시를 제시하며 또래 상담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군요.

**면접 대상자 :** 먼저 또래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뢰와 친근감**을 형성한 뒤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며 상담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어떻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상담 상황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면접자는 상담 상황을 가정하여 면접 대상자의 상담 태도를 확인하고 있군.' 정도의 선지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화법'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물론 저렇게 선지를 만들 수 없어도 저런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04 (가)에 반영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다. 자기소개서에는 ㉠ **지원 동기**, ㉡ **성장 배경 및 가정환경**, ㉢ **성격의 장단점**, ㉣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 ㉤ **지원자의 다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지원 동기 나왔었죠?  
㉧ 없습니다.  
㉨ 성격 얘기 없어요.  
㉩ 봉사 활동 했었죠?  
㉪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푸는 데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됩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세요. 각 문단마다 핵심을 잡고, 키워드를 잡고 읽었다면 충분히 기억납니다. 화법과 작문은 절대 조잔하게 출제하지 않아요.

답은 ④번입니다.

#### 05 (가)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지원 분야와 관련된 학업 계획을 언급하여 지원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지원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지원자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④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⑤ 지원자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활용하여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

① 구체적인 경험 있죠? 자신이 또래와 상담한 경험도 있고, 봉사 활동 경험도 제시했구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② 학업 계획은 없습니다.

③ 또래 상담에 대한 분석 결과도 없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나)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설문 조사가 있다고 언급만 할 뿐이죠.

④ 또다시 '비유적 표현'입니다. 지원자의 포부를 드러내는 부분이 마지막이니, 마지막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확인하는 게 좋겠죠?

⑤ 전문가의 평가는 없습니다.

**06** <보기 2>는 면접 대상자의 사고 과정 중 일부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A]~[C]에 대한 질문 분석과 답변 전략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

면접은 질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지식, 성품,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적 대화이다.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위해 면접 대상자에게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답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보기 2]

[질문 분석]	[답변 전략]
㉠ 자기소개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여 답변해야겠군.
㉢ 지원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답할 것을 요구하는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답변해야겠군.
㉤ 지원 분야와 관련한 상황을 제시하며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군.	㉥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지 않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답변해야겠군.
⋮	⋮

	질문 분석	답변 전략
①	[A]      ㉢	㉡
②	[A]      ㉤	㉣
③	[B]      ㉠	㉡
④	[B]      ㉠	㉣
⑤	[C]      ㉢	㉥

흔히 말하는 신유형입니다. 화법과 작문에서 신유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써도 된다는 마인드로 ‘천천히’ 푸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미리** 답을 만든 후에 고르기만 하는 게 좋겠죠?

㉠ - 추가적인 설명? 이미 (나)에서 잡았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했었죠? 자세히 말하자면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디. [B]에서 나왔었죠?

㉢ - 또래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었죠?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답변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또래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부분인 [A]로 가면 됩니다.

㉤ - 상담 상황을 가정했던 것은 [C]였고, 제시된 상황에 대해 대답했었죠?

따라서,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 ㉢ - ㉡

[B] - ㉠ - ㉣

[C] - ㉤ - ㉥

답은 ④번입니다.

**07** (나)에 나타난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②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와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③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 ‘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④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며 재진술하고 있다.
- ⑤ ‘면접자’는 면접의 도입부에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 주는 말을 하고 있다.

① 예측했던 선지입니다.

② 면접 대상자와 면접자의 견해 차이? 면접 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말도 안 되는 선지입니다. ‘토론’에서나 나올 법한 선지이죠.

③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경우 돌아가서 딱히 부정적인 게 없으면 맞는 선지입니다. 애초에 ‘긍정적’과 ‘부정적’은 애매하기 때문에, ‘긍정적’ 답변을 찾는다고 보다 ‘부정적’ 답변이 없는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④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지문으로 돌아가 ‘면접자’의 말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래포’ 부분에서 요약, 재진술 했었네요. ‘이런 내용도 선지로 나오구나!’하고 노트에 써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미리 알고 있었기에 해설에도 써놓긴 했습니다.

⑤ 예측했던 선지입니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 ○○시청 시내버스 운행 정책 담당자

건의문이네요. <시내버스와 관련된 문제>가 주제인가 봅니다. 예상 독자가 시내버스 운행 정책 담당자라는 것도 잡아야 겠죠.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A 단지'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 단지 학생들을 대표하여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의 고등학교들은 시내에 위치한 반면 2016년 2월에 생긴 A 단지는 시 외곽에 있어 이곳에 사는 많은 학생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30분 이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번 버스의 경우 A 단지를 지나 시청, 버스 터미널, 중앙 시장 등 시내 주요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에 이릅니다. 시내 고등학교들로 향하는 다른 노선들도 상황은 이와 유사합니다. 통학 시간이 길어서 아침부터 피곤해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게 되는 등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기피하게 되고 부모님의 자가용을 이용해 통학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은 A 단지에서 고등학교들로 향하는 시내버스 노선들이 시내의 너무 많은 정류장을 경유하기 때문입니다.

A단지가 2016년 2월에 생기고, 외곽에 있다는 정보는 세부 정보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시내버스 노선 문제'여야 합니다. 따라서 30분 이상 더 걸린다는 내용은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읽혀야겠죠. 시청, 버스 터미널, 중앙 시장은 역시 세부 정보입니다. 여러 곳을 경유한다는 정보 = '시내 버스 노선 문제'가 중요하죠. 그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네요.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은 세부정보구요.

시내버스 때문에 자가용이 늘었군요. 학부모한테도 문제고, 학교 주변 교통도 혼잡하답니다. 모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문제'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내버스 노선들이 너무 많은 정류장을 경유하기 때문'이라네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신설하

는 것입니다.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란 등교 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A 단지에서 출발해서 거점 정류장만을 경유하여 시내 고등학교까지 최단 경로로 운행하는 노선을 말합니다. 급행 노선의 신설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인접한 고등학교들을 묶어 하나의 노선으로 정하고, A 단지 이외의 학생들이 많이 타는 곳을 거점 정류장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신설하자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를 조사하고, 인접한 고등학교들을 묶고, 거점 정류장을 정하는 등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고 있네요. 실행 방안을 모두 기억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네' 정도만 하면 돼요.

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0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②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 방안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있다.
- ③ 건의 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① 권위자의 견해? 없습니다. 있었다면 체크했겠죠?
- ② 해결 방안의 한계점을 얘기하면 건의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해결 방안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요.
- ③ '비교'는 없습니다.
- ④ 예상되는 반론이 있었다면 체크했겠죠?
- ⑤ 예측한 선지네요.

09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건의문의 끝 부분에는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건의주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 ① 수요 조사에 따른 버스 운영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며, ○○시도 시내버스 운영 지원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② A단지 학생들이 겪는 등굣길 버스 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단지 학생들의 아침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A단지 학생들의 등굣길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으며, 여유롭게 등교할 수 있게 되어 A단지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④ 학생들의 자가용 통학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들을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어 학부모들이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긴 통학 시간으로 인한 A단지 학생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을 해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나오는 유형이죠?

1. 건의 주체에게 도움이 됨. (A단지 학생들)
  2.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됨.
- 이 두 가지를 찾으면 되겠네요. 먼저 1번부터 합시다.

- ① A단지 학생들 얘기는 없네요.
- ② 있습니다.
- ③ 있습니다.
- ④ 없네요.
- ⑤ 있습니다.

이제 2번을 고려합시다.

- ② A단지 학생들 얘기밖에 없습니다.
- ③ 마찬가지로입니다.
- ⑤ ‘인근 주민들 = 다른 사람’ 얘기도 있네요.

답은 ⑤번입니다.

10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려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인터뷰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너무 많은 곳을 돌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야 되고, 종종 아침밥도 못 먹고 갈 때가 있어요.”  
- □ □ 고등학교 학생 -

(나) ‘A단지’ 고등학생들의 등교 수단 이용률

등교 수단 조사 시점	자가용	시내버스	기타
2016년 6월	25.2%	66.7%	8.1%
2016년 12월	44.4%	47.8%	7.8%
2017년 6월	53.2%	38.5%	8.3%

- □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

(다) 신문 기사

△△시가 3월부터 고등학교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을 본격 적으로 운행하였다. 등교 급행 노선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통학생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학교까지 일부 정류장만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기존 40분대 통학 시간을 20분대로 줄였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로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급행 노선 운행 전보다 증가하였다.

- ① (가)의 학생 경험을 제시하여 등굣길 시내버스 노선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어야겠군.
  - ② (나)의 시내버스 이용률 변화 추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시내버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겠군.
  - ③ (가)와 (나)를 활용하여 자가용 이용률 증가가 시내버스 이용 불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겠군.
  - ④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자가용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군.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생 전용 급행 노선이 학생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군.
- ①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보여준다? 틀리지 않았네요.
- ② 시내버스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③ 자가용 이용률 증가가 시내버스 이용 불편의 '원인'이 아니죠? 인과 관계가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선지를 예민하게, 꼼꼼히 판단하세요.

④ 해결 방안이 효과가 있다는 실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시내버스 이용률이 늘어나면 자가용 이용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나)와 지문을 조합하면 알 수 있듯이 시내버스 이용률이 줄어들음으로써 자가용 이용률이 늘어났으니까요.

⑤ 해결 방안이 효과가 있으면 (가)의 인터뷰 내용이 해결이 되겠죠?

## 2018학년도 수능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조선의 궁중 음식 중 **수라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수라상의 상차림**,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 그리고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부터 체크하는 게 좋겠죠? 주제는 수라상입니다. 한편,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네요. 선지로 낼 수 있으니 체크하는 게 좋겠죠? 또한 우리도 발표 순서가 실제로 구현되었는지 점검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라'는요, 고려 때 몽골의 영향으로 생긴 말로 왕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 ㉠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라상의 사진인데요, **세 개의 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왼쪽에 보이는 큰 상인 대원반에는 흰밥과 탕, 반찬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소원반에는 팔밥과 탕,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왕이 고를 수 있게 밥과 탕을 두 가지씩 준비한 겁니다. 소원반 옆에 놓인 화로는 전골 요리에 썼다고 해요.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왕은 이러한 수라상을 아침과 저녁에 받았다고 합니다.

'수라'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로 낼 수 있겠죠? 또한 시각 자료를 사용해서 수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에서 말해줬듯이 수라상의 상차림부터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발표자가 시각 자료를 '왜' 사용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시각 자료의 내용 자체보다는 말이죠. 시각 자료를 통해 **수라상의 상차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반, 소원반에 흰밥, 탕 등등이 있다는 **세부정보** 따위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원반, 소원반, 화로가 수라상의 상차림에 포함되었다는 정도만 기억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사실 기억할 필요 없는 세부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라상의 상차림**에 대해서만 주목하면 되기 때문이죠.

왕이 하루에 식사를 두 번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 **두 번째 화면**을 볼게요. 이것은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입니다. 초조반상과 낮것상은 주로 죽으로, 야참은 면, 식혜 등으로 간단히 차린 걸 볼 수 있죠. 야참을 식사로 본다면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다섯 번이죠. 아침, 저녁의 수라상까지 합해 왕은 하루에 다섯 번 식사를 한 셈입니다. ㉢ **다음 화면**에서 보실 것은 **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여 준 후) 어떤 상궁은 왕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 보아 독의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상궁은 왕에게 생

선을 발라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왕은 상궁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했어요.

이번 문단에서는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에 주목하여 읽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식사 횟수와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 자료부터 살펴봅시다.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죽, 면, 식혜 등도 말이죠. 2문단에서 대원반, 소원반, 화로 정도를 기억하자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시각 자료를 통해 식사 횟수가 다섯 번이라는 점을 안내했다는 점만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청중에게 질문(소통)했다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 시각 자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봅시다. 이번에는 **왕의 식사 장면**에 주목해서 읽으면 되겠죠? 왕이 상궁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했다는 정보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독의 유무를 확인하고, 생선을 발라드렸다는 정보는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궁의 시중'이니까요.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궁중 음식이 민간의 음식뿐만 아니라 민간의 뛰어난 조리 기술까지 받아들여 우리 음식 전반을 아울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의의가 인정되어 조선의 궁중 음식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수라상에 대해 제가 참고한 기록은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수라상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당연히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를 발표하겠죠? 주목합시다. 민간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의 뛰어난 조리 기술까지 받아들였다는 정보는 세부정보입니다. 마지막에는 **참고자료**를 언급함으로써 발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군요.

## 0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②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발표의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야겠어.
- ③ 발표 중에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해야겠어.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도와야겠어.
- ⑤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여 청중의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겠어.

- ①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 ② 내용 요약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미리 체크했어야겠죠?
- ③ 청중에게 질문했었죠? 예측했던 선지입니다.
- ④ ‘수라’의 정의를 설명했었죠?
- ⑤ 발표 순서와 내용을 대응하며 읽었습니다.

## 02 발표에서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골을 조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소원반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②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음식이 차려진 상들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③ 왕이 식사한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해 ㉡에 수라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④ 수라상을 간단히 차린 이유를 알려 주기 위해 ㉡에 낮것 상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⑤ 수라상을 차리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에 시중을 드는 상궁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제시하였다.

시각자료의 활용 방식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시각자료의 활용에 대해 강하게 묻고 있는 만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주제에 맞는 핵심정보**를 기준으로 시각 자료를 ‘왜’ 활용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시각자료의 ‘활용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 자료의 모든 세부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18학년도 9월이나 이번 지문에서 읽는 법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① 조리하는 과정이 아니죠? 상차림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 ②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 = 상차림이죠? 틀리지 않았네요.
- ③ 식사한 시간이 아니라 식사 횟수를 설명하는 게 목표였죠?
- ④ 간단히 차린 이유를 식사 횟수로 바꿔야겠네요.
- ⑤ 차리는 과정이 아니라 왕의 식사 모습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 0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청자 1 : 궁중 음식을 민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간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수라상에 세 개의 상이 있다고 하면 서도 설명은 두 개만 해서 아쉬웠어.

청자 2 :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상궁을 기미 상궁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의 상궁 중 한 명이 기미 상궁이겠군. 그리고 발표자가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했다면, 오늘 들은 수라상에 대한 내용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청자 3 : 궁중 음식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조리법을 비롯한 음식 문화 전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겠군. 그리고 고추와 같은 재료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라 수라상의 음식들에 변화가 있었겠군.

- ① 청자 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⑤ 청자 2와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군.

청자 1 :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좋네요. 충분히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한 정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서 아쉽다는 선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청자 2 : 기미 상궁으로 알고 있는데’를 보니,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발표를 들었다는 선지가 나올 수 있겠군요. 또한 참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자 3 : 발표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를 보아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①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좋았었죠?
- ② 참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 의심 = 의문! 맞네요.
- ③ 발표 내용에 대한 해석 =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 충분



히 인정 가능한 선지입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설하자면, '조리법을 비롯한 음식 문화 전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겠군.'이라고 추론하고 있네요.

④ 청자 3은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니다. 틀렸네요.

⑤ 배경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4~7]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민호'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활동지

활동 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해 보자.

「허생의 처」에서 허생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상만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힘겹게 꾸려 나가지만 빈곤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 이러던 중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허생과 갈등한다. 두 인물을 삶에서 중요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서로 달라 같을지라도 볼 수 있다. 허생은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자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여 여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활동 2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활동 1’을 읽어보니 토의의 주제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일 것 같군요.

(가)

현지 : 오늘 내가 진행할게. (활동지를 나눠 주며) 지난 시간에 「허생의 처」를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활동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보자.

현지가 사회자입니다. 사회자로서 토의 주제를 안내하고, 토의를 진행하고 있군요.

민호 : 행복의 조건은 지혜나 도덕적 선과 같은 내적 조건과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잖아. 허생의 처는 빈곤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볼 때,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A]

민호의 주장을 살피시다. 행복의 조건을 ‘내적’과 ‘외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부’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네요.

영수 : 과연 그럴까? 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반박합니다. ‘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 것이라 하네요. 즉,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을 추구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민호 : 듣고 보니 그러네.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민호도 영수의 의견을 인정하네요.

현지 : 정리하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현지가 사회자로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토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군요.

민호 :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허생의 처는 홀로 가정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 받고 있고 허생은 허생의 처의 힘겨움을 외면하고 있어.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이번에는 민호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살펴봅시다.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허생의 처 ‘혼자’ 생계를 꾸리고 있으니까요. [B]

영수 : 맞아.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영수도 행복의 조건이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것에 동

의합니다. ‘허생의 처’의 내용을 인용하며 생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고 주장하네요.

**현지:** 정리하면, 결국 허생의 처는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어.

아래는 ‘민호’가 ‘활동 2’에 따라 쓴 글입니다. 성찰하는 글이므로 민호가 느낀 점을 (가)를 바탕으로 연계해서 읽어야겠네요.

(나)

『허생의 처』를 읽고 허생의 처가 빈곤한 형편에 힘들어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토의를 통해 허생의 처는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기를 바랐을 뿐, 물질적인 부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토의를 통해 깨달은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토의를 통해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가)의 토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지? 꼭 (가)와 연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계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허생의 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허생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느라 독서에만 전념하여 가정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생계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었고, 남편인 허생과 소원해지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또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민호가 깨달은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역시 토의를 바탕으로 글이 구성되니, 토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잊으면 안 됩니다. 토의에서 다루었던, <생계에 대한 부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모두 서술되어있네요. 새로 기억해야 할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토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모두 재진술 됐을 뿐이네요.

그동안 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등 행복의 외적 조건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공부나 친구를 핑계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인 ‘부’가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군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공부나 친구를 핑계로 했다는 것은 모두 세부정보죠? 문제 풀러 갑시다.

#### 04 다음은 ‘현지’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번 독서 토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우선 토의와 관련된 활동지를 나눠 주고, ㉡ 시작할 때 토의 주제를 언급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참여자들이 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 발언 순서를 지정해 줘야지. ㉣ 근거 없이 의견만을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해야겠어. 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 질문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마      ③ 가, 라, 파  
④ 나, 다, 마      ⑤ 다, 라, 마

현지는 사회자죠? 현지가 사회자로서 한 일을 체크하면 됩니다.

- ㉡ 토의 주제를 안내해 줬었죠? 기억 안 나시면 첫 부분으로 가세요.  
㉢ 사회자의 역할이긴 하지만 발언자를 지정해주진 않았습니니다. 앞으로 사회자가 발언자를 지정해주면 체크해야겠죠?  
㉣ 이것도 물론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선 없었죠?  
㉤ 현지가 계속해서 요약해줬습니다.  
㉥ 중간에 토의의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틀리지 않네요.

③번이 답입니다.

#### 05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영수’는 ‘민호’에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②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③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④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⑤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A]에서 영수는 민호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B]에서는 서로 동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했구요. 이 점을 확실히 하

고 선지를 풀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A]에 대해 묻는 선지는 <영수가 민호의 의견을 반박했는지>, [B]에 대해 묻는 선지는 <영수가 민호의 의견에 동의했는지>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영수가 반박했다는 방향의 선지는 맞지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

다.

② 영수가 민호의 의견을 수용했다? 틀렸습니다.

③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했다? 틀렸습니다.

④ 영수가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선지의 의견은 맞네요. 그렇다면 보완하는 의견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민호는 '생계적 부담'을 주장했고 거기에 영수는 '가족간의 소원한 관계'를 추가했네요. 틀리지 않았습니

다.

⑤ 영수가 민호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틀렸죠? [B]에서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06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민호'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문단**  
□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이 외적 조건이라고 한 기존의 내 의견과, 토의를 통해 수정된 내 생각을 함께 써야겠어. .... ①

**2문단**  
□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계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식으로 써야겠어. .... ②  
□ '영수'가 허생의 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진한 의견을 포함하여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써야겠어. .... ③

**3문단**  
□ 나와 '영수'가 허생의 처의 행복을 가족 간 관계의 측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이 편협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써야겠어. .... ④  
□ 허생의 처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와 '영수'가 동의했던 두 가지 이유 중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 이유로 구별하고 이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써야겠어. .... ⑤

(나)는 (가)에서의 토의 후 자신을 '성찰'하는 글의 초고였죠? (가)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써 있었습니다. 확인해봅시다.

① 1문단에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드러냈습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② 허생의 처의 행복의 조건을 '부'로 봤던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며 바뀐 자신의 생각을 썼습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③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썼습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④ 그동안 '부'와 같은 외적 조건을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⑤ 민호는 '생계 부담'과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를 주된 이유와 부차적 이유로 구별하지 않았습니

다. 두 주장 모두 결국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귀결되었죠. 삶을 반성하는 내용을 쓴 것은 맞습니

다.

07 <보기>는 '민호'가 (나)를 쓴 후 찾은 자료이다. (나)의 문맥에 따라 <보기>를 활용하여 ㉠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한 경제학자는 ㉠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와 같은 외적 조건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민호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겠네요.

○ OECD 국가 간 행복 비교 연구에서는 ㉢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것 역시 외적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줄 수 있겠네요. '물질적 풍요 수준 = 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 =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니까요.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세요.**

① ㉠을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② ㉡을 활용하여,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③ ㉢을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④ ㉠과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바람직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 ⑤ ㉢와 ㉣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를 추구할 경우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① 우리가 찾는 포인트와 어긋납니다. 외적 조건 외에도 행복을 위한 조건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선지를 찾아야 합니다.

② ‘부’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중요하다는 선지가 필요합니다.

③ 우리가 찾던 선지네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선지입니다. 자료 활용도 적절하구요.

④ 역시 ‘부’만 강조한 선지입니다.

⑤ 그럴듯한 선지이지만, ‘부’를 추구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 ㉣도 그러한 내용의 자료가 아니구요. ‘그렇듯’ 선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8~10]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 작문 상황 :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글을 게재하려 함.
- 글의 목적 :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글.
- 주제 :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자료 :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글의 주제는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자’네요. 설득문이고, 예상 독자는 학교 구성원입니다. 어떻게 주장하여 설득하려 하는지를 중심으로 읽어봅시다.

#### (나) 글의 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학급별로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면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지정했다는 것은 **세부정보**요? ‘학급별로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급별 봉사 활동’을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주제니까요. 1문단은 **주제**가 논의된 **배경**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그 이유로 **참여 의지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환경 정화 활동과 같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참여 의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핵심정보**네요. ‘환경 정화 활동’은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글의 **주제**인 ‘동아리별 봉사 활동으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이 문단에서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으로 진로와 관심을 반영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아리의 특색을 살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획일적인 봉사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우려도 있지만**, 이 방식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방식의 문제점’ 이후에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을 얘기함으로써 예상 독자를 설득하고 있네요. **기대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장점을 살펴보면, ‘진로와 관심을 반영한 봉사 활동’, ‘획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봉사 활동’이 있군요. 모두 외워줄 필요는 없고, ‘그럴 수 있겠다.’하고 이해만 해줍시다! 중간에 나오는 ‘진로와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는 **세부정보**입니다. 그 후에 ‘예상 반론’이 등장합니다.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예상 반박**일 뿐이죠. 항상 나오는 출제포인트죠?

청소년기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



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의 의의’와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의 의의’를 서술되어 있습니다.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그 전에 **주제**를 확실히 잡고 읽은 학생이라면 ‘청소년기의 의의’는 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 활동’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죠?

## 08 (가)의 사항이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우리 학교에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를 제시하였다.
- ③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 ④ 글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였다.
- ⑤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 활동과 관련한 설문 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① 논의의 배경이 드러났었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② 글의 목적은 ‘봉사 활동 운영 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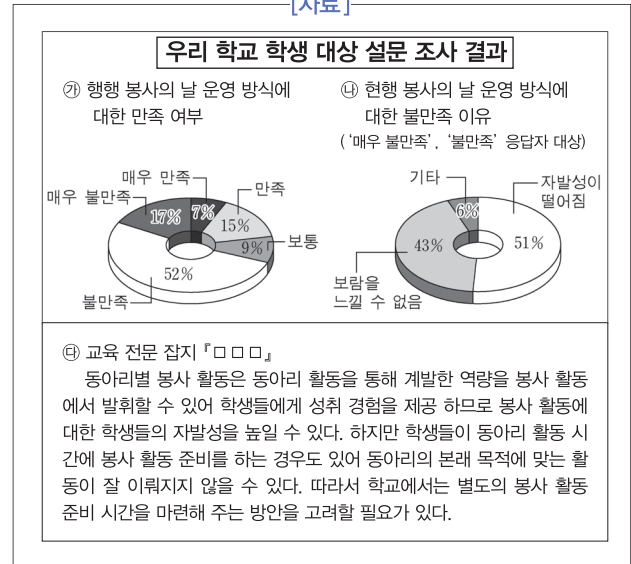
③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④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은 나열리도 없고, 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글의 주제와 완전히 어긋난 선지죠?

⑤ 설문 조사 문항은 제시하지 않았죠? 조사 대상인 학급 학생들은 제시했지만요.

## 09 다음은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 ① ㉠을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만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추가해야겠어.
- ② ㉡을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에 봉사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③ ㉢을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도입과 관련한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야겠어.
- ④ ㉠과 ㉡을 활용해,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으로 봉사 활동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⑤ ㉠과 ㉡을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또다시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줄글로 된 ㉠을 먼저 읽고, ㉠ · ㉡는 선지를 읽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① ㉠을 보니, ‘매우 불만족 + 불만족’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아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네요.

② ㉡을 보니,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점도 43%나 응답한 것으로 보아 추가할 수 있겠네요. 틀리지 않습니다.

③ ‘일부 학생들의 우려 = 예상되는 반박’이죠? ㉢에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서술되어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④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현행' 방식이 아니라 '동아리별' 방식이죠? 확실히 틀린 선지입니다. 또한 ㉞는 만족 여부를 나타내는 설문 조사 결과이지 그 '이유'를 드러내는 자료가 아닙니다.

⑤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 = 자발성이 떨어짐'이죠? ㉞에서 보면 성취 경험을 통해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선지를 꼼꼼히 판단하세요.

**10**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내 주신 검토 의견 중 ( ㉠ ) 해 달라는 말을 고려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봉사 정신을 기를 수 있고 자신들의 진로 관련 역량을 계발하여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①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추가
- ②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③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 ④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
- ⑤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은 추가

마지막 문단에 대한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정확히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찾아내면 되겠네요. 비교해 봅시다. 이미 지문에 서도 언급했지만 '청소년기의 의의'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첫 문장으로 올라가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했을 때의 기대 효과가 추가되었네요. 이것들이 반영된 선지를 찾으면 됩니다.

1. '청소년기 의의'의 삭제
2.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후의 기대효과'

이 두 가지로 선지를 걸러냅니다.  
일단 항상 하던 대로 1번부터 판단해봅시다.

- ① 있습니다.
- ② 있습니다.
- ③ 있습니다.
- ④ 없네요.
- ⑤ 없네요.

이제 2번으로 답을 결정해 봅시다.

- ①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 추가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첫 문장으로 위치만 바뀌었죠? 예민하게 선지를 판단하세요.
- ② 기대 효과! 맞습니다.
- ③ 지원 방안은 기대 효과가 아닙니다. 틀렸네요.

답은 ②번입니다.